

국어 외부부정의 의미해석

이 익 환  
(연세대학교)

SEMANTIC INTERPRETATION OF KOREAN EXTERNAL NEGATION

Ik-Hwan Lee  
(Yonsei University)

이 논문은 국어 부정문의 의미분석을 위하여 바람직한 의미이론을 제안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국어의 내부부정(internal negation)은 물론 외부부정(external negation)에 상응하는 문장부정의 통사구조가 있다는 것을 논의를 통하여 입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문의 의미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정문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수정,보완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부정논리에 입각한 전통에 일치하는 몬태그(Montague)의 부정문 규칙이 국어의 부정문 처리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된 규칙을 제안한다. 이어서 최근에 발전된 상황의미론(situation semantics)에서 국어의 문장부정을 다루는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마련한다. 특히 국어의 외부부정이 야기시키는 중의성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바람직한 의미론을 세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정문에 대한 보편적 통사-의미론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I. 서론.

일반적으로 자연언어에는 의미적 외부부정(external negation)에 상응하는 통사구조가 없다고 주장된다(Englebretson 1981b; Cooper 1988; Horn 1989). 이 논문에서는, 우선 국어에는 외부부정에 상응하는 통사구조가 있다는 것을 논의하고, 이러한 외부부정의 의미적 표시를 위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의미분석이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외부부정이 야기시킬 수 있는 의미의 중의성을 논의하며, 이러한 의미구분을 만족스럽게 다룰 수 있는 바람직한 의미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기존의 가능세계 의미론(possible world semantics)과 상황 의미론(situation semantics)에서 미비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II절에서는 영어와 같은 언어자료를 이용하여, 외부부정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들을 논의한다. III절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정논리를 검토하여, 현대 형식의미론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논의한다. 이어 IV절에서는 국어 부정문의 특징을 논의하

고, 외부부정의 중의성을 논의하고, 통사적 문장부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V절에서는 국어 부정문의 통사-의미론을 세우는데 몬태그 문법이 갖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칙의 수정,보완을 제안한다. VI절에서는 문장부정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상황의미론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의 수정,보완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VII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II. 내부부정(internal negation)과 외부부정(external negation)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미적인 문장부정(sentential negation or propositional negation)을 지적한다.

- (1) Not every student passed the test.
- (2) A child hasn't been born in this town for two years.
- (3) It's not true that Mary likes John.

의미적인 면에서 볼 때, 위 각각의 문장에서 부정(negation)은 전제 문장을 영향권(scope)으로 갖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에서는 부정어 not 이 특정양화표현

(existential quantifier) a (child) 보다 더 넓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만이 의미있는 해석이다. 이 문장을 다음 (4)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4) There is some child who has not been born in the town.

그리고, (3)의 경우에는 'it is not true'이 의미국면을 나타내기 위한 상위언어적(metalinguistic) 표현으로 명제문장 다음 (5)의 문장 전체가 그 영향권 내에 오게되는 것이다.

(5) Mary likes John.

위 (1)-(3)의 문장을 두고, 영어 부정어 not이 자기의 영향권 내에 하나의 단위문장을 갖게되어 소위 말하는 문장부정이 적어도 의미적으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영어에 통사적 문장부정 구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적 문장부정과 1대1의 관계에서는 통사구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Geach 1980[1972]: 75; Katz 1977:238; Barwise & Perry 1983:138; Cooper 1988:49; Horn 1989:467,477,487). 그래서, 이러한 의미적 문장부정은 통사적으로는 구성요소의 부분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을 술어논리적 표현방법을 써서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면, 위 (1)의 문장에서는 명사구 'not every student'를 일반양화구(generalized quantifier)인 'every student'가 부정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2)의 경우는 동사구의 부정이 주어 자리에 나타나 있는 일반양화구 'a child'를 부정하는 것으로 분석하면 된다. 그리고 (3)의 경우는 위 (5)의 문장을 문장부정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한 상위언어적(metalinguistic) 편법이라고 분석된다(Cooper 1988:50). 이처럼 영어에서는 의미적 문장부정을 통사적으로는 구성성분(constituents)의 부분부정인 (특히, 동사구 부정 (verb phrase negation)) 문장의 의미적 해석에서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통사적으로 구성성분 부분부정인 문장의 중의성을 논의하게 된다. 위에 든 (3), (5)와 더불어, 다음 (6), (7)을 검토하여 보자. [편의상 (3)과 (5)를 반복함.]

(5) Mary likes John.

(6) Mary does not like John.

(7) Mary dislikes John.

(3) It's not true that Mary likes John.

여기에서 (6)은 (5)의 부정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통사구조이다. 그러나 (6)은 (7)과 (3)처럼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론자들을 간략한 논리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Like (Mary, John)

(7)' ¬Like (Mary, John)

(3)' ¬[Like (Mary, John)]

(7)' 과 (3)' 은 논리적으로 같지 않다(Kroch 1975:102).

(3)' 은 문장부정 (sentence negation)으로 술어부정 (verbal negation)인 (7)' 보다 더 약한 개념이다. 논리적으로 이야기 하면, (5)' 과 (3)' 은 서로 반대대당(contrary)의 관계이며, (5)' 과 (7)' 은 서로 모순(contradictory)관계이다. 즉, (5)' 과 (3)' 은 동시에 참(true)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false)일 수는 있다. 반면에, (5)' 과 (7)' 은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 이처럼 영어의 구성성분부정의 일종인 술어부정은 의미적 중의성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모순을 야기시키는 술어부정적 의미는 내부부정(internal negation)이라 칭해지고, 반대대당을 야기하는 문장부정적 의미는 외부부정(external negation)으로 지칭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도 흥미롭다.

(8) John couldn't solve many of the problems.

(9) John couldn't solve all of the problems.

(10) All of the problems were not difficult.

이 예들은 영어 토박이들도 의미해석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문장 모두를 의미적 중의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Lasnik 1975[1972]:24,32,40; Jackendoff 1972:352f; Kroch 1975:65-67). 즉, 통사적으로는 술어부정문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양화사와 관련하여 내부부정과 외부부정의 중의성을 갖는다. 한가지 해석으로는, 양화표현에 대해서 부정어 not이 넓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이며, 또 한가지 의미로는 부정어가 양화표현 보다 좁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이다. 이를 유사 논리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8]: a. MANY (NOT)

b. NOT (MANY)

(12) [=9]: a. ALL (NOT)

b. NOT (ALL)

(13) [=10]: a. ALL (NOT)

b. NOT (ALL)

위 (11), (12), (13)에서 a-표현은 각각 내부부정을 나타내고, b-표현은 각각 외부부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예들을 근거로 하여 영어에 있어서 통사적 술어부정은 많은 경우 내부부정과 외부부정의 의미적 중의성을 지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III.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부정논리

위 영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고대 그리스어(ancient Greek)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즉,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부정논리에도 통사적 문장부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Englebretsen 1981b; Horn 1989:463-5). 그렇다고 해서 의미적 문장부정인 외부부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해석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대한 Horn(1989)의 요약을 아래 (14)에 인용하겠다.

- (14) a. Logic is the study of propositions. A proposition is a sentence which can be true or false; every proposition is either true or false.  
 b. Every (simple) proposition is CATEGORICAL, containing something (the SUBJECT) about which something (the PREDICATE) is said.  
 c. There are no propositional operators as such.  
 d. Subject and predicate can be combined by two different MODES OF PREDICATION, (PREDICATE) AFFIRMATION (in which the predicate is AFFIRMED of its subject) and (PREDICATE) DENIAL (in which the predicate is denied of its subject). Affirmations and denials differ in QUALITY.  
 e. A predicate may be truly denied of its subject because the subject fails to exist, because the predicate fails to apply naturally to it, or because the predicate expresses a property which the subject accidentally fails to possess. Thus, *Socrates is not wise* (assuming a nonexistent Socrates), *The number 2 is not blue*, and *Reagan is not a Democrat* are all true instances of predicate denial.  
 f. Any term may be negated. *Not-man* (as in *Not-man is fury*) is an instance of subject term negation, *not-happy* (as in *John is not-happy*) of predicate term negation. A predicate term negation affirms a negative term (*not-happy*) of the subject; a predicate denial (*John is not happy*) denies a positive term (*happy*) of the subject. If John does not exist, the former is automatically false and the latter is true.  
 g. Predicate term negation yields CONTRARY oppositions; *A is B* and *A is not-B* cannot both be true but may both be false. Predicate denial yields CONTRADICTORY oppositions: *C is D* and *C is not-D* necessarily differ in truth value in that one must be true and the other false.  
 h. Predications, whether affirmations or denials, may be UNIVERSAL (*All men are (not) happy*; *No men are (not) happy*), PARTICULAR (*Some men are (not) happy*), SINGULAR (*John is (not) happy*), or INDEFINITE (*(A) man is (not) happy*). This is a distinction in QUANTITY.  
 i. Predication of whatever quality and quantity may be ASSERTORIC (*is/isn't*), APODEICTIC (*must be/ needn't be*), or PROBLEMATIC (*may be/ can't be*). This is a distinction in MODALITY.

위 (14)에 우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a-항에 언급된 바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서는 통사적으로 부정문이 주어와 술어가 합하여져서 하나의 단순 명제를 이루는 문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진 연후에 부정의 연산자가 합해지는 소위 통사적 문장부정이 없다는 것이다. 즉, 문장부정이 없으며, g-항에 소개되어 있는 두가지 부정구문 중에서 어느 것도, 소위 말하는 통사적 외부부정 (external

negation)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이 부정문 형성 과정으로는 이중부정구문이 도출되지 않아, 자연언어에서 부자연스러운 인위적 이중부정구문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의미적 외부부정은 그 개념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e-항에 나타나 있다. 즉, e-항에는 만일 주어의 대응물 (referent or object)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명제가 거짓 (false)이 된다는 언급이 있다. 이것은 부정문의 외부부정적 의미해석의 일부이다.

위 g-항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 g-항의 술어[명사]항 부정(predicate term negation)은 Russell(1974[1905])이나 Frege 1952[1919]에 있어서의 문장부정인 외부부정의 효과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15), (16), (17)의 문장을 보자.

- (15) The man is happy.  
 (16) The man is not happy.  
 (17) The man is unhappy.

위 (16)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순부정으로 통사적으로는 술어 부정이다. 그리고 (17)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대대당부정으로 통사적으로는 역시 술어부정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부정문을 술어[명사]항 부정이라 일컬어 모순부정인 술어부인 (predicate denial) 부정문과 구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정논리에서는 통사적으로 문장부정은 설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Russell이나 Frege의 부정논리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의미적인 문장부정의 효과는 일부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이 Montague(1974) 문법에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ristotle as a Montague grammarian"이나 "Aristotelianized Montague grammar" 라고 하는 Horn(1989:478)의 표현이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다. 즉, 몬태그 문법에서도 통사적으로는 부정문이 주어와 술어가 합해지는 규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비범주적으로(syncategorematically)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의미적인 문장부정의 현상은 양화규칙을 사용하여 적절히 설명하며, 위 II절에서 논의된 영어의 중의성 문제도 통사적 문장부정의 규칙 없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어디까지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어에서나 Montague의 영어에 문장부정의 통사적 형태가 없거나 극히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나 Montague는 다같이 표현

(surface)에 표현되는 문장구조를 중요시하여 통사적 구조를 생각하며, 그에 따르는 의미적 국면은 의미 규칙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영어에 의미적으로 외부부정 즉 문장부정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특정 통사구조가 있다면 몬태그 문법에도 통사적 문장부정 규칙이 설정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만일 그러한 영어가 있다면 그 언어를 위한 통사-의미규칙에는 그러한 통사-의미 국면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어가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여 보겠다.

iv. 국어의 외부부정과 중의성

본 절에는 우선 국어 부정문의 통사적 특성을 간략히 논의하고 나서, 위 II절에서 논의된 영어 부정문의 중의성과 유사한 현상을 국어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겠다. 그리하여 국어에는 외부부정에 해당하는 의미국면을 표현하는 특정 통사구조가 있음을 보이겠다. 그렇게 하여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사의 규칙을 논의하겠다.

1. 국어 부정문의 두가지 형태

표면구조에서 볼 때, 국어의 부정어 A나니는 항상 주동사 앞에 나타난다 (김현숙 1977:670; 이익환 1980:52). 이 부정어는 다른 범주(예를 들면, 명사나 부사)의 어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국어에는 영어의 'no man,' 'not many men,' 'not often,' 'not all the people,' 등과 같은 표현에 1대1로 상응하는 같은 범주의 표현이 없다. 이들은 부정어는 동사 앞에 나타나더라도, 관련된 해석은 이 부정어와 다른 표현 사이의 영향권 관계로 하여 적절히 얻어진다. 다음 (18)-(19)에 주어진 문장을 보자.

(18) 모든 사람이 안 왔다.

(19) 모든 사람이 오지 않았다.

이 문장들의 의미를 편의상 영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20) [+18]: All the people did not come. (verbal negation only)

(21) [+19]: (1) Not all the people came.

(11) It is not that all the people came.

전통적으로 (18)과 같은 문장은 유형-I 부정문으로, (19)와 같은 문장은 유형-II 부정문으로 불리어 왔다. 이익환(1979)은 이 유형-I을 '술어부정(verbal negation)'으로, 유형-II를 '문장부정(sentential negation)'으로 표현했다. 여기에서는 술어부정과 문장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다.

이 두가지 유형의 부정문을 통사적으로 다루는 데에 있어서 지난 20여년 동안 국어 통사론자들은 두가지 견해로 양분되어 논란을 계속했다. 다음 (22), (23), (24)와 같은 좀 더 단순한 문장에 예로 들어 이들의 견해를 간단히 요약하겠다.

(22) 비가 온다.

(23) 비가 안 온다.

(24) 비가 오지 않는다.

우선, 위 (23)과 (24)에 보인 두가지 형태의 부정문을 하나의 심층구조에서 도출해낸다는 것이 많은 통사론자들의 견해이었다. 즉, 박순함(1967), 이흥배(1972), 오준규(1971), 양동휘(1976)등이 방향성에 있어서 견해 차이는 있지만, 단일 심층구조에서 위의 술어부정과 문장부정을 모두 도출해 낸다고 주장하는 면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이들의 방법은 이익환(1979)에 자세히 논의 되어 있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러한 단일 심층구조 가설은 '부정어 운반'이나 '부정어합류' 등과 같은 변형규칙들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단일 심층구조 가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바람직한 분석 방법이 있음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일 심층구조 가설에 반하여, 송석중(1973, 1976), 조준학(1975), 이기용(1979), 이익환(1979) 등에서는 이 두가지 부정문을 각각 다른 심층구조에서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를 한다. 특히 이들은, 앞의 단일 심층구조 가설을 세우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23)-(24)의 동의성(synonymy) 논의를 반박한다. 즉, 이들은 (23)과 (24)의 부정문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들을 동의문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통사적으로도, 이들을 다르게 도출하면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부정어 운송'이나 '부정어 합류'와 같은 비현실적 통사규칙 같은 것들도 짚뽕된 설정이었음이 확실한 것이다. 즉

현재 발견되는 통사이론에 비추어 볼 때, 단일 심층구조 가설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송석중, 조준학, 이익환 등에서 주장되고, 이론화 된 이중심층구조 가설이 타당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송석중(1971)의 분석에도 변형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부정어 위치'(NEG-placement) 규칙은 문장의 보문(complement) 층위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심층구조 가설에서의 변형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구조규칙(phrase structure rules)을 주축으로 하는 문법이론에도 이 규칙이 말하는 국면이 합성성원리(compositionality principle)에 위배되지 않고 병합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송석중

의 이중심층구조 가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더 상세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논의는 이익환 (1978)에서 자세히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보충적인 설명으로 의미적 중의성이 잘 처리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려고 한다.

2. 국어 문장부정의 중의성

우리는 위 II절에서 (5)-(10)의 영어 예를 검토하여, 영어에서는 통사적으로 술어부정인 문장이 의미적으로 중의성을 갖게되어 문장부정의 의미인 외부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중의적 국문이 국어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영어와 다른 점은 이 중의성이 술어부정구문이 아닌 문장부정구문에서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국어에서는 술어부정은 중의성을 야기하지 않고, 문장부정이 중의성을 야기시킨다.

다음 (25), (26), (27)에 주어진 예를 보자.

- (25) a. 모든 소녀들이 철수를 안 좋아한다.
- b. 모든 소녀들이 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 (26) a. 한 소녀가 철수를 안 좋아한다.
- b. 한 소녀가 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 (27) a. 많은 소녀들이 철수를 안 좋아한다.
- b. 많은 소녀들이 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의 의미적 해석상황을 다음 (28), (29), (30)처럼 나타낼 수 있다.

- (28) [25a]: [ALL(NOT)]
- [25b]: (1) [ALL(NOT)]
- (11) [NOT(ALL)]
- (29) [26a]: [ONE(NOT)]
- [26b]: (1) [ONE(NOT)]
- (11) [NOT(ONE)]
- (30) [27a]: [MANY(NOT)]
- [27b]: (1) [MANY(NOT)]
- (11) [NOT(MANY)]

위에서 이미 언급된 것 처럼, (25)-(27)에 주어진 예 중에서, a-문장들은 술어부정(verbal negation)들이고, b-문장들은 문장부정(sentential negation)문들이다. (28)-(30)에 보인 것 처럼, 술어부정은 비중의적이고, 문장부정은 중의적이다. 문장부정의 중의성은 부정어 아니와 모든, 한, 많음과 같은 양화사와의 사이에 야기되는 영향권으로 인해서 생기는 중의성이다.

이 자료에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화표

현이 포함되어 있는 국어의 문장부정은 의미적으로 중의적 해석을 갖는다. 따라서, 국어의 술어부정과 문장부정은 동의적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술어부정과 문장부정을 통사적으로 단일 심층구조에서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문장부정이 야기하는 중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라도, 국어에서는, 영어와는 달리, 통사적 문장부정의 실제적 형태를 중요시 하여야 한다.

v. 아리스토텔레스-Montague 문법의 수정

위 III절에서 우리는 Montague(1974) 문법에서 부정어 not이 소개되는 통사 규칙은 문장부정의 통사구조를 생성하지 못하게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Montague 문법에서 부정문 형성 통사규칙이 주어와 술어를 합하는 규칙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부정논리와 합일되고 있는 통사규칙이라는 것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봉에 입각한 Montague의 통사규칙은 영어에 그러한 문장부정 통사구문이 없거나 있어도 그것은 단순히 상위언어적(metalinguistic) 표현이라는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자료에 입각하여 세워진 통사규칙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장부정의 통사구조를 갖고 있는 국어의 현상을 다루는데는 미흡하다. 따라서, 국어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Montague가 설정한 부정문 형성 규칙을 다음 (31)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31) 국어 부정문 통사규칙

S13. 술어부정:

$$\alpha \in P_{IV}$$

$$F_{13}(\alpha) \in P_{IV}$$

여기에서,  $F_{13}(\alpha) = O\lambda I + \alpha$ .

단:  $\lambda$  에는 부정어 아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S14. 문장부정:

$$\theta \in P_c$$

$$F_{14}(\theta) \in P_c$$

여기에서,  $F_{14}(\theta) = \theta' + \lambda$  이 아니 하다.

단:  $\theta'$  은  $\theta$  (즉  $P_c$ )의 문장끝어 (-다)를 없애고, 마지막 동사를 비정형 어근(nonfinite root)으로 바꾼 것임.

(32) 국어 부정문 번역규칙

$$T13. F_{13}(\alpha) \rightarrow \langle \lambda x \neg \alpha(x) \r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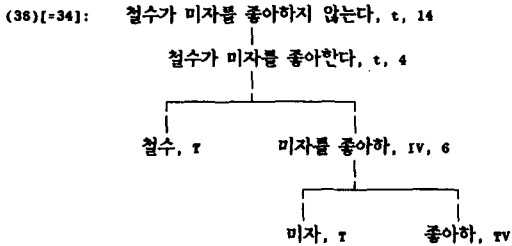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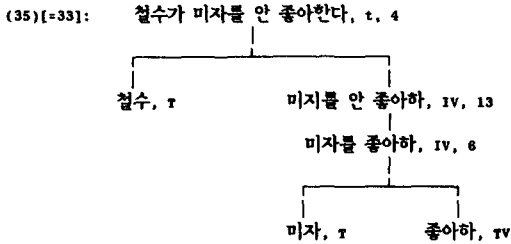
$$T14. F_{14}(\theta) \rightarrow \langle \neg \{\theta\} \rangle.$$

이제 이 규칙들을 사용하여, 다음 (33)과 (34)의 두 문장을 도출하고 의미해석을 위한 번역을 하여 보겠다.

(33) 철수가 미자를 안 좋아한다.

(34) 철수가 미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몬태그 문법의 다른 통사규칙(이익환 1979)과 위의 부정문 규칙을 사용하면, (33)은 (35) 처럼 그리고 (34)는 (36) 처럼 도출된다.



논리 언어로의 번역은 다음 (37)-(38)과 같이 얻어진다.

(37) [-33]:  $\neg \text{like}'(c, m)$

(38) [-34]:  $\neg[\text{like}'(c, m)]$

이 논리표현이 다음 (39)의 문장과 갖는 관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39) 철수가 미자를 좋아한다.

위의 논리표현 중 (37)은 내부부정으로 (39)와는 모순(contradictory) 관계이다. 반면에, (38)은 외부부정으로 (39)와는 반대대당(contrary) 관계이다. 바꾸어 말하면, (34)의 '철수가 미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영어에서는 상위언어적 표현으로 간주되는 'It is not that/the case that John likes Mary'에 해당되는 표현으로서, 국어표현은 자연스럽고 흔히 쓰이는 문법적인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외부부정은 의미적으로 중의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외부부정은 그 부정어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구성성분들(constituents) 중에서 어떤 한가지를 부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 중 한가지 구성성분이 동사구(verb phrase)이므로 외부부정의 한가지 해석이 내부부정과 같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지금 까지, 국어의 내부부정과 외부부정의 통사구조와 의미적 해석을 위한 규칙을 세웠고, 그 규칙을 사용하여 관련된 문장을 설

명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상황의미론에서는 이러한 내부부정/외부부정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여 보겠다.

#### VI. 상황의미론과 외부부정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상황의미론(Barwise & Perry 1983; Cooper 1987, 1989)에서는 술어부정(verb phrase negation)과 문장부정(sentence negation)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의미론에 입각하여 술어부정은 쉽게 다루어질 수 있지만, 문장부정을 다루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상황의미론을 발전시킨 Barwise와 Perry의 언급을 다음 (40)에 인용하겠다.

(40) The simplest form of negation in English is verb phrase negation, rather than sentence negation. Compare:

(2) A DOG WASN'T BARKING

with

(3) IT IS NOT TRUE THAT A DOG WAS BARKING.

In (3) there is an embedded sentence, while in (2) there is none. The type of negation in (2) can easily be handled in VP rules, as has already been indicated in an earlier section. But sentence negation is a complicated matter, not one we take up in detail here. If I say "A dog is not barking," this can describe any factual situation in which some dog is not barking at the location referred to. However, if I say "It's not true that a dog is barking," my new utterance doesn't mean that. Indeed, to ask what situation I am describing seems to miss the mark. Rather

it seems that my utterance, if informative, serves primarily to preclude certain types of situations, namely, those with barking dogs. (Barwise & Perry 1983: 138)

이제 이들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자. 상황의미론은 상황의미론을 사용한다. 평서문(declarative sentence)은 가능세계(possible world)에서 참(true) 거짓(false)의 개념으로 논의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situation)을 기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황은 상황의미론적 대응물(object)로서 사실(fact)을 지지(support)한다. 이 지지의 개념을 다음 (41)에 보인 것과 같은 부호를 써서 나타낸다.

(41)  $a \mid = \sigma$

이 식은 상황  $a$ 가 사실  $\sigma$  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사실(fact)도 상황의미론적 대응물로서 다음 (42)의 예와 같이 표현된다

(42) a.  $\langle \langle \text{like, John, Mary}; 1 \rangle \rangle$

b.  $\langle \langle \text{like, John, Mary}; 0 \rangle \rangle$

이러한 사실들은 시공(time-place)을 나타내는 위치변수  $\langle \rangle$  과 일정 항(place)의 관계(relation), 이 관계의 항을 채워주는 개체들(individuals), 그리고 사실의 긍정/부정 여부를 밝혀주는 극어값(polarity value)으로 1이나 0을 포함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

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지받는 경우에 그 상황을 기술하는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음 (43)과 같은 의미규칙을 말할 수 있게 된다.

(43) a.  $s \mid = \langle \{ \langle \text{John, like, John, Mary; 1} \rangle \}$  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John liked Mary* 라는 문장이 상황  $s$  를 기술한다.

b.  $s \mid = \langle \{ \langle \text{John, like, John, Mary; 0} \rangle \}$  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John didn't like Mary* 라는 문장이 상황  $s$  를 기술한다

이 경우 (43a)와 (43b)는 각각 전체적으로 참이 되는 것이다. 즉, (43b)의 경우는 부정적 특정 사실이 기술된 상황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다음 (44)의 문장은 의미적으로 대단히 다른 경우가 된다.

(44) *It's not true that John likes Mary.*

이 경우는 부정적 특정 사실이 지지받다가 보다는, 위 (42e)와 같은 긍정적 사실을 포함하는 상황들이 되는데도 모두 제외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된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44)의 문장이 'John likes Mary'라는 문장과는 모순이 아닌 반대대당(contrary)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기술된 상황에 의해서 특정 사실이 지지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상황의미론에서는 이러한 문장부정, 즉 외부부정, 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이점이 바로 위 (40)에 인용한 Barwise와 Perry의 말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다. 문장부정이 *and*나 *or* 등으로 연결된 문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Cooper 1984, 1987, 1989). 하지만, 여기에서는 상위언어적인 (44)와 같은 문장부정의 의미가 상황의미론에서는 잘 다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의 경우는 위 (44)와 같은 상위언어적인 표현으로서의 문장부정만 있고, 다른 통사적 문장부정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국어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통사적 문장부정 구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규칙을 명확히 밝히는 의미론이 되지 못하면 그 의미론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 있는 예문 (39), (33), (34)를 여기에 반복한다.

(39) 철수가 미자를 좋아한다.

(33) 철수가 미자를 안 좋아한다.

(34) 철수가 미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위의 논의를 재분하면, (39)와 (33)은 모순관계이고, (39)와 (34)는 반대대당관계에 서는 해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흥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해석이다. (33)은 술어부정이고, (34)는 문장부정이다. 상황의미론의 상황, 사실, 지지 등의 개념으로는 (33)의 술어부정이 주는 모순관계는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34)의 반대대당관계는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지받을 부정의 사실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34)가 기술하는 상황  $s$  는 그 상황이 지지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직관적으로 그 사실들은 (33)이 참이 되는 그러한 사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39)에 의해 기술되는 상황이 지지하는 사실이 성립되지 않지만 하면 된다. 이것은 (33)이 성립한다는 것만 전하 다르다.

이러한 문제를 상황의미론의 기본 틀을 살리는 방향에서 다루려고한다면, 어렵다. 한가지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설정된 상황(situation)의 개념위에 상위상황(meta-situation)의 개념을 세우는 것이다(Horn 1989:470). 여기에서 말하는 상위상황이란 구체적인 사실(fact)을 지지(support)하는 구체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들의 집합을 많은 부분집합들로 집단화시킬 수 있는 비구체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 문장부정의 예를 설명하는데는 위 (39)의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 사실들(facts)을 지지하는 추상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추상적인 상황이 구체적인 상황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더 연구되어야겠지만, 일단 이러한 추상적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의미론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의미론은 사실적의미(realistic meaning)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VII.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국어에 두가지 부정문의 형태가 있음을 논의하고, 이러한 두가지 부정의 의미를 잘 다룰 수 있는 의미론을 세운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내부부정과 외부부정의 두가지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를 검토하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부정논리에서는 의미적으로 내부부정과 외부부정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외부부정을 뜻하는 문장부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어에 문장부정의 통사구조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리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발전된 몬태그(Montague) 문법에서도 문장부정이 규칙으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영어에 'It's not true...'와 같은 상위언어적 표현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장부정의 통사구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국어에는 내부부정과 외부부정이 모두 통사적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어의 경우는 이러한 부정문의 통사-의미를 다루기 위해서 특히 문장부정을 의한 규칙이 세워져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몬태그 전통의 문법이론을 일부 수정, 보완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어에 있어서는, 영어와는 달리 부정문을 다루는 통사-의미 규칙이 술어부정과 문장부

점으로 이원화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이 적용되는 예를 보았다.

결론으로, 국어의 이러한 부정문 의미를 최근에 발전된 상황의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였다. 상황의미론에서는 현재의 이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을 논의를 통해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수정이 현재의 상황의미론에서 어느정도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속단을 유보하였다.

결론을 내리자면, 국어 부정문의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미론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 불충분한 면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이론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수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바라건대, 이 논문이 지금까지 국어 부정문에 대한 많은 논의를 요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

참 고 문 헌

김영희. 1984. 한국어 선후화 구문의 통사론. 서울: 탑출판사.  
 김현옥. 1977. The role of word order in syntactic change: Sentence-final prominence in Korean negation. *BLS*. 3:870-84.  
 박순함. 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Ph.D Dissertation, U of Michigan.  
 송석중. 1971. A note on negation in Korean. *Linguistics*. 76:59-76.  
 송석중. 1973. Some negative remarks on negation in Korean. *한국어학연구*. 9:2,252-63.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송석중. 1975. Confessions of an ordinary working grammarian. Ms. Michigan State U.  
 양동휘. 1978. Korean negation revisited. *언어*. 1:1,183-217.  
 오준규. 1971. On the negation of Korean. *한국어학연구*. 7:2, 45-66.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이기용. 1979. 두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어부에 대하여. *한국어학*. 8. 서울: 한국언어학회.  
 이기용. 1985. On Montague grammar. 서울: 한신문화사.  
 이영현. 1984. 양화사의 의미표시와 해석. 서울: 한신문화사.  
 이흥배. 1972. Problems in the description of Korean negation. *한국어학연구*. 8:2, 60-75.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이익환. 1970. 국어 '까지/마저'와 부정의 명량권. *언어*. 4:1, 25-52. 서울: 한국언어학회.  
 이익환. 1980. Korean particles, complements, and questions: A Montague grammar approach. 서울: 한신문화사.  
 이익환. 1983. 現代意味論. 서울: 민음사.  
 이익환. 1985. 意味論概論. 서울: 翰信文化社.  
 이관복. 1977. 국어의 標語와 話用上의 假定. *한국어학연구*. 13:2,115-128.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조준학. 1975. The scope of negation in Korean. 손호민, 편. 1975. *The Korean language: Its structure and social projection*. Hawaii: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 of Hawaii. 63-80.  
 Barwise, J. & J. Perry. 1983. *Situations and attitudes*. Cambridge, MA: MIT Press.  
 Cooper, R. 1984. Sentence negation in situation semantics. *CLS*. 20.  
 Cooper, R. 1987. *Introduction to situation semantics*. Course material for the 1987 Linguistic Institute, LSA. Stanford U.  
 Cooper, R. 1988. Facts in situation theory: representation, psychology, or reality? in R. Kempson, ed. (1988), 49-82.  
 Englebretsen, G. 1981a. *Logical negation*. Assen, Netherlands: Van Gorcum.

Englebretsen, G. 1981b. *Three logicians: Aristotle, Leibniz, and Sommers and the syllogistic*. Assen, Netherlands: Van Gorcum.  
 Frege, G. 1952[1919]. Negation. in P. Geach & M. Black, eds.[1952].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Oxford: Blackwell.  
 Geach, P.T. 1980[1972]. *Logic matters*.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Horn, L. 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 121-74.  
 Horn, L. 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espersen, O. 1917. *Negation i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Copenhagen: Bianco Lunos.  
 Katz, J. 1977. *Semantic theory*. New York: Harper & Row.  
 Keenan, E. & L. Faltz. 1985. *Bosnian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 Dordrecht-Holland: D. Reidel.  
 Kempson, R. ed. 1988. *Mental representation: The interface between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 Press.  
 Kroch, A. 1975[1974]. *The semantics of scope in English*. Bloomington, Ind.: Indiana U Linguistics Club.  
 Kuno, S. 1980. The scope of the question and negation in some verb-final languages. *CLS*. 20:155-89.  
 Lasnik, H.1975[1972]. *Analysis of negation in English*. Bloomington, Ind.: Indiana U Linguistics Club.  
 Montague, R. 1974.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 in R. Thomason, ed.(1974), 247- 71.  
 Russell, B. 1974[1905]. On denoting. in F. Zabehh, et al. eds. 1974. *Readings in semantics*. Urbana: U Illinois Press.  
 Thomason, R. ed. 1974. *Formal philosophy: Selected papers of Richard Montague*. New Haven: Yale U Press.